

# 어명소 2차관, “안전한 열차 운행이 최우선”

## - 29일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점검… 안전 점검·운영 당부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한국철도공사(이하 철도공사) 노조의 파업 예고일(12.2)을 앞둔 11월 29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공사 노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(영상)를 갖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.
- 점검회의를 주재한 어 차관은 “화물연대 등 노동계 총파업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인 철도공사의 노조가 파업 강행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” 며 유감을 표했다.
  - 어 차관은 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하는 국민들뿐만 아니라, 수능 이후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입학절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다” 면서, 파업기간 동안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.
- 어 차관은 “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 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열차운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”라며,
  - “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 노조 파업 전날인 12월 1일부터 주요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, 파업 종료 시까지 철도기관사 대체인력 투입, 버스·항공 등 대체수송수단 증편 등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
- 이어 “철도공사가 철도안전의 모든 영역을 전담하고 있는 만큼 노조 파업기간에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한다” 며 철도공사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당부하였고, “열차운행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 노사 간 조속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” 고 말했다.

2022. 11. 29.

국토교통부 대변인